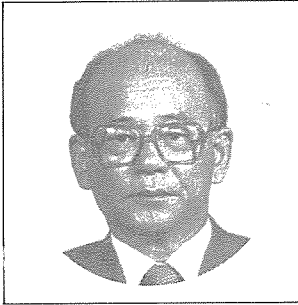


“과학기술 優位風土造成에 最善”



權 爰 赫
〈科總會長〉

尊敬하는 金鎮炫 科學技術處長官님을 비롯한 科學技術界 元老, 先輩, 代議員 그리고 來賓 여러분!

오늘 公私多忙하신데도 불구하고시고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第26回 定期總會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科學技術의 振興과 暢達을 위하여 묵묵히 各 分野에서 所任을 다하여 주신 科學技術人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致賀와 激勵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聯合會는 지난 1966년 創立된 이래 科學技術人의 總和와 結集을 통하여 國家科學技術力을 跳躍시키는 데 目標을 두고 많은 難關을 克服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돌이켜보면 '60년의 脆弱했던 科學技術 環境 속에서 71개 團體로 출발했던 우리 聯合會는 이제 240개 團體會員이라는 巨大한 집단으로 성장하면서 명실공히 2,000년대 科學技術界의 主役으로서 그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동안 우리 聯合會는 社會各

界의 변화와 혼돈 속에서도 “科學技術 自立이 곧 國家發展”이라는 大命題를 실천하는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產學協同을 통하여 學會의 學術活動이 더욱 활성화되고 研究能力과 研究環境이 급격히 高揚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 것은 오직 우리 科學技術人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각고의 결정이 라 하겠습니까.

오늘날 國家間的 技術戰爭은 날로 치열의 度を 더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걸프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양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政府와 國民 모두가 과학기술진흥의 긴요성을 절감하면서 낙후된 科學技術投資를 지속적으로 증대하도록 추구하고 學術활동을 위한 학회지원예산이 12억원대로 대폭 신장된 것도 우리 과학기술인에게는 매우 鼓舞的인 사실이라고 하겠습니까.

한편 우리 聯合會는 百萬과학기술인의 宿願事業인 科學기술진흥센터의 건립을 위한 대지구입을 지난해에 완료하였으며, 科學技術處의 位相과 役割을 정립하는 데에도 앞장서는 등 科學技術政

策立案과 관련하여 行政府, 立法府 등과의 긴밀한 유대를 갖고 우리나라 科學技術 暢達과 科學技術人의 權益伸張을 위한 각종 효율적인 政策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科學技術人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大望의 21世紀에는 경제, 사회, 문화 등 各部門에 걸쳐 선진수준의 福祉社會로 진입하고자 하는 염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念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科學技術의 革新과 跳躍만이 최상의 關鍵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科學技術 개발을 위한 국제여건은 날로 어려워만 가고 있습니다. 保護貿易主義의 強化와 더불어 製品開發에 要諦가 되는 技術의 이전은 통제되어 있고 特許權, 著作權마저 습득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科學技術力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實質의이면서도 具體의인 과학기술진흥시책이 절실히 要請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理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國際化 趨勢에 부응하여 國際協同을 통한 學術情報의 교환과 기술협력 등 先進國은 물론 東歐 및 共產圈과의 交流擴大에도 우리 聯合會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民族의 自存과 繁榮을 위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南北學術交流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데에도 우리 科學技術人이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科總은 금년도에 “南北科學技術共同協議體” 구성을 목표로 1차적으로 北韓이 참석하는 學術會議를 第3國에서 개최토록 하고 共同學術調査사업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科學立國의 정책을 가시화하고 國內外 각종 科學技術活動과 정보교류의 급증에 대처하여 科學技術文化의 창달과 정착에 구심체적 역

할을 담당할 科學技術振興센터의 건설을 汎科學技術界가 참여하는 가운데 科總이 중심이 되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科總이 해나가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科學技術 優位の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科學技術의 중요성과 科學技術 跳躍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마당에서는 마땅히 관계요소에 科學技術專門人이 두루 등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科學技術人의 權益이 伸張되고 사기가 진작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國民의 생활 속에 합리적인 사고가 깃들고 청소년기부터 창조의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汎科學技術界가 참여하는 國民科學化運動의 효율적인 추진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科總이 지나온 발자취와 추진해야 할 여러가지 사업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結論의으로 말씀드리어서 올해에도 우리 科總은 科學技術政策의 개발, 學會 學術活動 육성을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교환 및 국제협력사업, 과학기술풍토조성 및 科學技術人의 권익신장은 물론 南北민간과학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과학기술진흥센터를 건립하여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元年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비판기능을 갖춘 科學技術界의 대변자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91년도의 새해 사업을 확정짓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科學技術人들은 스스로가 國家發展의 기수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모든 國民의 의식 속에 창조와 능률 그리고 합리의 정신이 심어지고 科學者와 기술자 그리고 기능인이 우대받는 풍토가 이룩되도록 다같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科學技術處를 비롯한 關係當局, 在外科學技術人 그리고 言論關係者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우리 科總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科學技術界 원로, 선배, 동료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家庭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